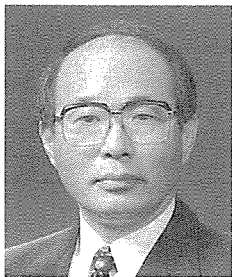


85년 전통 ... 약학발전의 모태

대한약학회

대한약학회는 1914년 조선약학회 창립으로 출발하여 1951년 대한약학회로 개칭, 근 1세기동안 우리나라 약학발전의 모태로서 자리를 굳혔다. 10개 위원회와 13개 분과학회의 조직을 갖고 있는 약학회는 매년 2차례 학술대회를 열고 있으며 국문과 영문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영문학회지는 올해 12월부터 World Wide Web에 자동연결 소개됨으로써 전세계의 과학자와 도서관 연구소 등에 공개된다.



文昌奎
(대한약학회장/서울대 약대 교수)

대한약학회는 우리나라 약학관련 학술연구활동의 중심 학회로서 1914년 조선약학회로 창립되었으며 1951년 대한약학회로 개칭되고 1984년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1세기 가까운 기간동안 한국 약학발전의 모태가 되어 왔다.

약학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약물이나 방법 등을 개발하며 관련된 생명현상을 규명하는 학문으로서 종합과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연구영역이 다양하고 이 분야 연구인력들의 기관별 분포 또한 다양하다.

대한약학회의 회원 구성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병원, 약국 등에 근무하는 약학을 전공한 과학자들이 주축이 되고 있으나 식품, 환경, 화장품은 물론 기초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전문위원회와 분과학회 확대

대한약학회는 현재 1명의 회장, 7명의 부회장과 20명의 이사, 1명의 간사장, 18명의 간사 그리고 기획, 재무, 편집, 학술, 산학협동, 약학정보, 출판, 재산관리, 국제협력, 약사제도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 위원장과 약물학, 약제학, 약품분석학, 약품화학, 위생약학, 천연물과학, 미생물 및 면역학, 병태생리학, 생화

학, 물리약학, 병원약학, 임상약학, 한약학의 13개의 분과학회장 등이 주축이 되어 학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춘·추계 학술대회 논문 9백여편

학회의 주요사업으로는 학술대회의 개최, 학회지 발간, 학회정보화 등의 사업을 들 수 있다. 학술대회는 매년 2회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를 지방과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하는데,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수는 연 9백편을 상회하고 있으며 해마다 15~20%의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데, 그 중 'International Congress of New Drug Development(1991)'와 한국 약학교육 80주년을 기념하는 'International Symposium on Pharmaceutical Sciences(1995)', 'The 5th Korea-Japan Joint Symposium on Drug Design and Development(1996)' 그리고 매 2년마다 개최되어 제7회째가 된 'International Symposium Ganoderma lucidum' 등은 그 질과 규모면에서 특기할만하다.

특히 1997년 추계학회와 병행 개최된 국제학술심포지엄(Recent Advances in Pharmaceutical Research)에서는 16명의 해외 한국인 약학관련 과학자들을 연사로 초청하여 그들의 연구활동을 국내의 학계와 산업계에 소개함으로써 국내학자 및 산업체와의 상호협력적 연구체계로의 발전을 시도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유학 희망자 및 박

사후 연수생들의 진출 활로를 개척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연수생들에게도 좋은 접촉 창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문학회지, 국제수준의 학술지로

대한약학회는 국문학회지인 「약학회지」와 영문학회지인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를 각각 연 6회 그리고 소식지 팜플릿을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영문학회지는 Current Content, Chemical Abstracts, Excerpta Medica 등에 인용되고 있어 이미 국제적으로 문헌 인용도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아울러 본 학회 영문학회지가 1998년 12월부터는 Index Medicus와 MEDLINE에 등재가 확정되어 차후 영문학회지의 논문 인용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ISI에서 발표한 Citation Report에서는 Science Citation Index(SCI)에 이미 등재된 국내 타 학회지를 능가하는 Impact factor를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대한약학회 학회지가 유사한 학문영역의 다른 국제적 학술지들의 기본적인 수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ISI가 적정한 분류를 통해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의 조속한 SCI 등재를 실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문학회지에 대한 인식도와 문헌 인용도의 증가는 그간 학회 전 임원들이 꾸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학회지 홍보사업의 결실이다.

영문학회지의 문헌 인용도(Impact

factor)를 높이기 위해 학회지의 Editorial Board에는 미국을 위시한 일본, 캐나다 등 학술선진국에서 활발히 연구활동을 하는 우수 외국인 과학자들과 교포 과학자들을 대거 초빙하고 이들로 하여금 매년 일정수의 수준 높은 Original Article이나 Review 등을 투고하도록 유도하였고 특히 재미 한국인 약학관련 학자들로 하여금 학회 영문학회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학회지가 국제수준의 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끔 협조를 유도해 왔다.

또한 학회지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향상 발전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의 하나로 대한약학회는 미국내 한국인 생물의학 관련 과학자들의 학회인 The Society of Biomedical Research와 영문학회지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의 공동 간행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1998년 마지막 호부터는 공동 간행이 실현되게 되었다.

대한약학회는 능률적인 학회업무의 수행과 학회 및 학회지의 국제적 홍보 효과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회원신상 정보의 전산화가 진행중이고, 국·영문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어 웹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본 학회 영문학회지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는 미국의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Center, NIH 그리고 Office of Dietary Supplement의 협력

Project로 이루어진 전세계적인 학술 정보 체계인 World Wide Web에 지속적으로 소개될 학술지로 선정되어 1998년 12월부터는 이 World Wide Web에 본 학회 영문학회지와 국문학회지 영문초록 Web Site가 자동연결됨으로써 전세계 과학자, 도서관, 학술연구소 등에 공개되고 우리 영문학회지의 논문초록과 전문이 필요에 따라 제공될 예정이다.

다양한 시상제 연구의욕 고취

대한약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연구 및 약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약계 언론단체, 제약회사 등의 협찬으로 학술본상, 약학연구상, 약학교육상, 약학기술포상, 학술장려상, 신평호월상 등 다양한 시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술본상 수상자는 1954년 숙명여대 약대 채례석교수가 제1회 수상한 이래 현재까지 42명이 수상하였고 1992년에 새로 제정된 약학연구상, 약학교육상, 약학기술포상은 현재까지 각 7명, 학술장려상은 현재까지 48명이 수상하였다.

대한약학회는 앞으로 보다 내실있고 수준 높은 학술행사의 개최, 우수한 학술지의 간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약사연구교육센터 및 의약품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약계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특히 약사들의 지속적인 자질향상과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바른 사용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바른 이해를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㉞